

## 94. 나의 잃어버리고 외로운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라.. 오래된 집을 내려놓아라!

2015.07.15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그들의 삶을 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유익에 따라 응답되어 지지 않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아.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그들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는 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한 주범이 사탄인데도 오히려 나를 탓해. 그들은 나에게 와서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만 나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응답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길이 어떨지 알고 있고 그들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때때로 너희들은 겉모습만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완벽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질린 무신론자들을 만나.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나쁘게 행동하면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 나는 기독교인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의 무신론 형제자매들에게 적용하기를 바래. 나는 무신론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나의 자녀들은 너보다 더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은 용서를 받았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희들은 항상 기독교인의 삶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해. 너희들은 내가 그 기독교인을 붙잡기 전에는 그들이 어땠는지 보지 못해.

(클레어) 주님, 저는 지금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휴! 좋지 않아요, 전혀 좋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만하며 물질주의에 깊이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했어요. 깊은 우정을 쌓지 못하고 사랑을 주거나 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셨을 때 제 안의 무엇인가가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는데 몇 년이 걸리셨어요. 하지만 변화하였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것들에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보다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이 너의 삶에 찾아왔어. 너가 항상 꿈꿔왔던 종류의 사랑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동행. 나는 너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내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냈어. 그리고 너가 나에게 누구였는지. 정말 특별해, 아주 정말 특별해. 아무도 너에게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 받은 적도 없어.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너의 삶에서 절대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너는 내가 신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나의 왕국에 대해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의 교회에 대한 경험은 다른 어떠한 경험들 보다 좋지 않았어. 너는 비기독교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 것보다도 더 그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한가지를 가지고 있었어: 나와 개인적인 관계. 너는 날마다 내 옷자락을 만졌고, 나쁜 일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겪은 일들을 견디어 냈어.

너도 알시피 종교와 하나님은 서로 닮은 점이 없어. 종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체계야. 반면에 나는 규칙과 규정 없이도 너를 안아줘, 심지어 나의 이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 때에도. 마음과 영으로 나를 알고 내가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그들에게 내자신을 드러내.

그리고 삶에서 너무 거칠게 다루어져 사랑에 대한 희망이나 받아들여지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반드시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놀라게 해야해. 나는 반드시 그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그들을 데려가 나의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씻겨야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해 나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 하지만 세상과 그 유혹이 그들을 압도하여 그들은 너무 늦을때까지 그 목소리를 무시해.

나는 항상 부르고,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치유를 가져다주고 싶어해.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적어도 기꺼이 죄를 포기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야해. 육체의 쾌락이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더 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육체가 늙고 약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해. 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그들의 붙잡고 있는 비통함으로 인해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때까지 요양원에서 쇠약해지도록 허용해.

오, 영혼이 나의 사랑에는 문을 닫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때 얼마나 슬픈지.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버림받고 혼자가 되고, 그들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확신하여 회개의 여지가 없어. 모든 것을 무고한 피해자들인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

클레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너가 사랑하기를 바래. 나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 너의 길로 나아가라.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입 그리고 나의 귀가 되어라.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이 자격이 없을 때에도 너의 친절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어. 이것은 여러번 그들의 저항에 대한 마지막 한계이며 그들은 많은 눈물과 함께 그들의 죄들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깨달아. 그들이 너무나도 특별하여 그들을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나는 그 고난을 견뎌냈어. 나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꺼안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이 날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받는 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야. 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궁핍해. 그리고 특히 부유한 사람들.

(클레어) 주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끔찍한 일들에 대한 비난을 받으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하신일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가혹하고 끔찍한 신으로 봐요.

(예수님) 사람들은 빨각게 달아오는 뜨거운 아궁이에 들어가 몰록에게 제물로 바쳐진 아기들의 끔찍하고 가슴아픈 비명을 듣지 못했어. 사람들은 그들이 동물에게 저지른 변태적인 행동을 보지 못했어. 심지어 동물들도 그들의 사악함을 피할 수 없었어. 사람들은 악마와 악의 힘을 수태시키는 악마와의 성관계 의식을 보지 못했어.

왜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했는지에 대해서 오랜세월동안 거의 이해되지 않았어. 하지만 나의 말에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아. 나는 그 사악함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어. 그리고 지금 너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다가가고 있어. 그래, 모든 변태적인 것들과 사악함은 법으로 허용되어질 거야. 어린 아이들을 즐기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있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어. 그것들은 지금도 있지만 여전히 꺼려지고 있어.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야. 서명되어져 있는 그 법들은 모든 가증한 행위를 음란물보다 더 합법화시킬 거야. 이제는 연령제한이 없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직접 해볼 수 있을 거야. 결국 이것은 쾌락을 가져오고, 쾌락은 너의 권리이자 자유가 될 거야.

나의 자녀들, 나의 고집스러운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을 부르고 있어. 너희들의 외로움을 버려라. 거짓말들, 어둠, 혼란을 버려라. 오거라.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오거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안식과 너희들의 마음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게 될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거야.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악이 아니라 선을 예비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하기를 갈망하였던 것들, 선물들,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 누가 그 갈망을 너희들의 안에 넣었을것 같아? 이제 나는 너희들의 삶에 성취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어.

너희들의 죄들은 너희들에게 오직 슬픔과 실망만을 가져왔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야.  
오래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신선하고 다시 태어남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야.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부르고 있어. 나에게 오거라. 너희들이 태어났던 그 자궁으로 너희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나는 너희들을 안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너희들을 둘러쌀 거야. 그래, 나는 너희들을 최고급 옷으로 입히고 너희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너희들의 발에 샌들을 신겨주고, 우리는 하나로써 함께 걸어갈 거야. 단지 나에게 너희들이 상처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지쳤다고 말해줘.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해줘. 나의 용서를 구하고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넘겨줘. 나는 너희들을 소중히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끌고 인도할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손을 잡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의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말을 해라. “예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주님께 저의 삶을 드려요.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절대로 저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